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6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19일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윤 대통령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통합의 주춧돌"

5·18 42주년 기념식

유족·유공자·여야 국회의원 등 2000명 참석 5·18묘지서 엄수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시민"

민주의 문으로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민주의 문을 들어서 식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5·18 유족 및 유공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와 여·야 국회의원, 시민 등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관련기사 2·3·4·5·6·7·16·17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정치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라 해명했던 윤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는 거듭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정신을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면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기존 입장을 우회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물론 진상조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며 헌법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며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26차 회기 정기총회
일 시
2022. 5. 30.(월) 오후 6시30분
장 소
데일리웨딩컨벤션
• ☎ 062-371-3500
• 광주 서구 상무대로 683

한덕수 인준 투표 … 민주당, 고심 또 고심

새 정부 첫 총리 상징성 현재까지는 부결에 무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투표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에 '부적격' 낙인을 찍었지만,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상징성과 무게감 등을 고려해 실제 부결 투표를 할지를 두고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개최에 앞서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인 표결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반대 투표를 통해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 기립박수로 호응하면서 협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만큼 명분을 잃은 쪽은 윤 대통령이라는 논리다.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자와 한 장관의 연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총을 통해 모일 의원들의 '총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논란을 빚은 인사인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거취도 한 후보자 인준안 투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를 부결시킬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후반기 원 구성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자칫 정국 경색의 책임을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될 수도 있다.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굉장히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흐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흐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적격 부결, 부적격 인준 두 가지 중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배려"라며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결시키거나,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 출발은 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인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